

RM “방탄이 방탄, 아미가 아미가 되기까지”...BTS 10주년

위버스에 10주년 기념 소감...“2막을 가늠해봐”
지민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언가에 온전히 기뻐”

“어떤 말에 마법이 걸린다는 건 참 특별한 일이지. 한 명사가 대명사가 되기까지. 방탄이 방탄, 아미가 아미가 되기까지. 많은 비바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이 헤시칠 수 없을, 우리만의 세계를 쌓았습시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이 팀 데뷔 10주년을 맞은 13일 “아미 여러분과 저희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 덕에 다시는 겪지 못할 참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RM은 이날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입니다. 무수한 파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새벽들이 참 많습니다. 스물과 서른의 전 폭탄 사람들 같습니다. 이전 예전의 제가 더 낯설곤 한다”고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RM은 돌아보면, 잠시 회상에 젖다가도 씩 새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익숙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의 2막을 가늠해본다고 했다. “꼭 아무것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열일곱과 스물에 했던 고민들과 양면성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RM은 조금씩 어른이 돼 가며 세상엔 말과 글만으론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것들도 인젠가 변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또한 ‘이름’ 하나의 탄생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힘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고 했다.
RM은 “저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하다”고 겸손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낯설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울 테죠”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보겠다는 마음이다. “파

로 또 같이, 멀지만 가까이, 제게는 당신들이, 당신들께는 제가 있길 바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멤버들, 스태프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아미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십 년도 같이 잘 살아보아요. 이 놈의 세상 속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지민도 이날 위버스에 “아미 여러분들 지민입니다. 와 10주년입니다”라면서 소감을 남겼다.
19세에 아미를 처음 만나 현재 29세라는 지민은 가끔 현 상황이 실감이 안 난다면서 “저도 이제 어른이랍니다. 아직 마음은 19세 때랑 비슷한데 몸은”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아무튼 그냥 보고싶네요. 예전에 참 언젠가 우리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궁금했었는데요. 별로 다른 건 없는 거 같다”면서 “오하러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아가 진행 슈티타 보고 있어서 좀 감성 올랐었는데 그냥 좋다”고 했다. “슬픈 감정보다 여러분들과 차곡차곡 쌓여가는 무언가가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온전히 기뻐



도(Yeouido)가 펼쳐진다. 당일 오후 5시 리더 RM과 함께하는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와 오후 8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방탄소년단의 히트곡과 정국의 내레이션이 더해진 불꽃놀이를 예고했다.



스키즈 ‘빌보드 200’·‘아티스트100’ 정상 차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외에도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예고 기사처럼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K팝 팀들이 이번 주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대활약했다.
13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로 17일 자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아티스트 100’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작년 발매한 두 장의 미니 앨범인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와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에 이어 이번 ‘파이브 스타’까지 3연속 빌보드 2개 메인 차트 동시 1위에 등극했다.
3작품 연속 ‘빌보드 200’ 차트 1위로 데뷔한 기록은 영국 출신 세계적인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가 3장의 솔로 음반으로 거둔 기록 이후 처음이다.
또 스트레이 키즈의 이번 ‘파이브 스타’는 발매 첫 주 음반과 스트리밍 합계 판매량 24만 9500장으로 지난해 ‘빌보드 200’ 1위를 밟은 두 미니 앨범의 첫 주 차 판매량을 합산한 것보다 높은 자체 최고 수치를 찍었다. 이종 피지컬 음반 판매량은 23만5000장으로 올해 기준 미국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판매된 피지컬 앨범이 됐다. 작년 10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스(Midnights)’ 이후 발매 첫 주에 가장 많은 피지컬 음반을 판 음반이 됐다.
게다가 ‘파이브스타’는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차트까지 빌보드 5개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특’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진입 직전 25개 곡의 순위를 매긴 ‘버블링 언더 핫 100’에서 19위에 올랐다. 아울러 ‘특’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2위,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3위, ‘빌보드 글로벌 200’ 24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15위, ‘디지털 송 세일즈’ 22위 등 빌보드 최신 주요 차트 총 11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엔하이픈(ENHYPEN)’도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맹활약했다. 앞서 예고 기사로

알려진 것처럼, 미니 4집 ‘다크 블러드(DARK BLOOD)’가 ‘빌보드 200’에 4위로 진입하면서 해당 차트 자체 최고 성적을 썼다.
또 이 앨범은 또한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에 나란히 2위로 진입했다. ‘테이스트메이커 앨범’ 차트에도 6위로 등장하는 등 총 5개 앨범 차트에서 ‘톱 10’에 들었다.
이와 함께 엔하이픈은 ‘아티스트 100’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 기준 최고 순위인 11위에서 다섯 계단을 끌어올렸다. ‘다크 블러드’ 타이틀곡 ‘바이트 미(Bite Me)’는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108위, ‘글로벌 200’ 164위에 자리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83위를 차지하며 19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자체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을 거듭 경신하는 동시에 올해 발매된 K-팝 그룹의 앨범 가운데 ‘빌보드 200’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도 갈아 치웠다.
그룹 ‘세븐틴’(SVT)의 미니 10집 ‘FML’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13위를 차지하며 6주 연속 차트인했다. 또 그룹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은 ‘빌보드 200’에서 107위를 차지하며 5주 연속 진입했다. 4세대 K-팝 걸그룹 중 최장 진입 기록이다.
영미권 싱글 차트에 균열을 낸 K팝 신인 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큐피드(CUPID)’는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지난 주 23위에서 2계단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해당 차트에 12주 연속 진입에 성공하며 K팝 걸그룹 최장 차트인 기록을 자체 경신해나가고 있다. 또 ‘큐피드’는 ‘빌보드 글로벌 200’ 3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3위를 기록하며 두 차트에서는 8주 연속 더블 톱10을 기록했다.
글로벌 관련 차트 등 기존 빌보드 내 세부차트에 진입해 있던 K팝 음원들이 상당수 상승세를 보였는데,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이 지난 7일부터 빌보드의 데이터관리 업체 루미네이트(Luminate Data Holdings)에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울귀먹기 예능만 몇 년째”...이효리 행보 비판글 갑론을박

영화평론가 김모씨 “난 이효리가 요즘 좀 안타깝고 안스럽다”

가수 이효리의 행보를 비판했던 영화 평론가가 자신의 글이 갑론을박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했다.
영화평론가 김모씨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난 이효리가 요즘 좀 안타깝고 안스럽다. 김태호랑 과거 울귀먹기 예능만 몇 년째 하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런 예능은 하던 할수록 잊혀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과거의 스타같은 느낌만 더 강해질 뿐이잖아”라고 지적했다.
이효리는 젊고 흥미로운 프로듀서 작곡가들을 모아 동시대적인 음반을 낼 역량과 영향력이 충분한 아티스트라는 게 일단 김 평론가의 판단이다.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계속 추억팔이 예능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랜 팬들이라면 언니(누나) 예능에서 볼 수 있어서 반가워요”라고 할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게 옳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성기 인기를 회복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을 업데이트하면서 음반을 내는 마돈나,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로의 길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돼 갑론을박이 파란을 일으킨 후 온라인에 연예 기사로까지 둔갑하자 해당 평론가는 사안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실제 해당 글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라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쓴 얘기라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김 평론가가 이효리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 애정이 있어 건설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효리는 현재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에 출연하고 있다. 김태호 PD가 연출하는 예능이다. 두 사람은 앞서 MBC TV ‘놀면 뭐하니’ ‘쌩쓰리·환불원정대 프로젝트, 티빙 ‘서울 체크인’·‘캐나다 체크인’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배우 이병헌 ‘콘크리트 유토피아’ 152개국 관객 만나다

이병헌·박서준·박보영 등 호화 출연진



배우 이병헌·박서준·박보영 등이 출연하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전 세계 관객을 만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 작품이 프랑스·이탈리아·일본·인도·멕시코·브라질 등 152개국에 판매됐다고 13일 밝혔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서울에 대지진이 발생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병헌은 외부인에게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

도 마다하지 않는 주민 대표 ‘영탁’을, 박서준은 아파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민성’을, 박보영은 민성의 아내로 극한 상황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명화’를 맡았다.
프랑스 배급사 조커스필름은 “엄태화 감독은 연대에 대해 고찰하게 하는 스펙터클한 재난 영화를 선보였다”며 “이병헌 배우의 활약이 놀랍다”고 했다. 이탈리아 배급사 블루스완엔터테인먼트는 “올해 한국 영화 중 가장 돋보인다. 이 영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남미 배급사 BFDистри뷰션 역시 “스펙터클한 재난과 휴먼 드라마가 공존하는 강렬한 영화”라고 평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김승홍 작가가 2014년에 내놓은 웹툰 ‘유토피아 왕따’ 2부인 ‘유폐한 이웃’이 원작이다. 연출은 ‘임투기’(2013) ‘거리진 시간’(2016) 등을 만든 엄태화 감독이 했다. 엄 감독은 배우 엄태구의 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중 공개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코요태, 7월 컴백...8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

혼성그룹 코요태가 7월 컴백한다.
13일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코요태가 내달 컴백을 확정 짓고 다양한 티징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10월 싱글 ‘렛츠 코요태(LET’S KOYOTE)’ 이후 8개월 만이다. 소속사

측은 “올여름 무더위를 확 날려줄 국민그룹의 귀환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데뷔 25주년을 맞은 코요태는 앨범 발매와 여러 축제 무대는 물론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음악과 예능을 통해 두루 활약하며 대중을 만났다.

